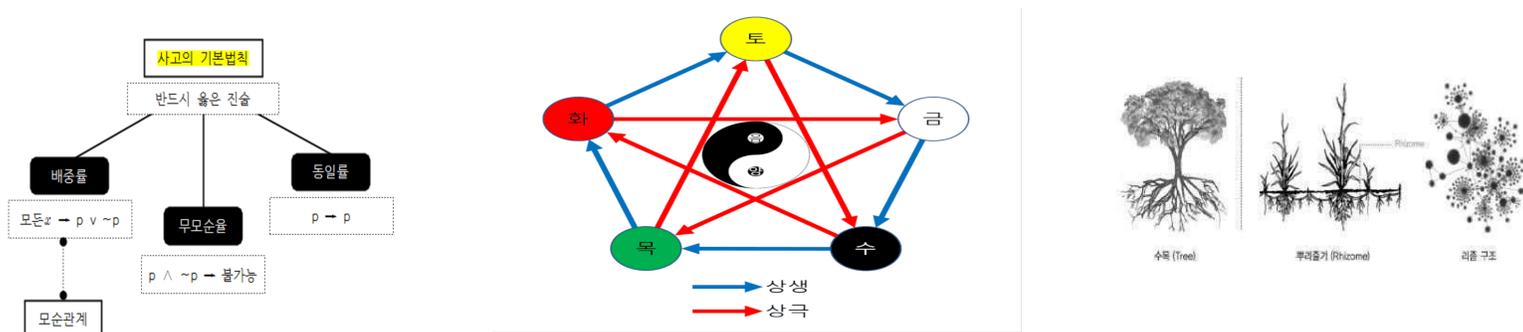


관계론적 세계관에서 생태학적 세계관으로의 대전환 -생명에 대한 물리, 화학 및 정보이론적 접근을 넘어 새로운 환경 이해-

양선진(서울시립대 철학과)

생명과 생명체는 다르다. 생명은 생명체를 기초로 하며 생명체란 생명의 물질적 토대이다. 생명 공학자들은 생명의 본질이 정신이 아닌 물리적 토대인 육체, 특히 유전자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전제를 인정하며, 생명의 신비가 바로 유전자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생명에 대한 이해가 네트워크 이론 및 양자역학과 같은 자연 과학적 이해 없이 생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문학 및 사회과학적 이해 없이 자연 과학적 이해만으로 생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본 논문에서는 유전공학적 이해에서 출발한 생명 이해의 문제점을 새롭게 갱신한 현대 과학의 이론, 특히 양자역학과 복잡계 이론을 통한 생명 이해가 올바른 것인지 검토하는 기회를 얻고자 한다.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동양 사상, 특히 왕양명(王陽明: 1472-1528) 철학의 독특성과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하며 새롭게 제기되는 과학이론, 네트워크 이론 및 양자역학을 간략히 살펴보고 네트워크 이론이 갖는 철학적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단순한 물리적 토대인 근대역학부터 양자역학까지 과학의 변천사를 통해서 과학발전사가 지닌 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이후, 인간과 환경의 상화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에서 출발한 현대 생태주의 존재론에서 이해하는 인간 생명에 대한 이해가 동양철학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찰하면서 왕양명의 사상을 통해서 생물학자나 물리학자들이 제안하는 생명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새로운 생명관을 제안하면서 생태주의 존재론이자 생태주의 가치론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닫힌 체계(closed system)인 개체 생명체는 혼돈과 무질서로서의 우주의 관계망의 환경과 상호 작용하며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환경의 조화(음양오행의 평행상태)가 깨지면 건강하지 못하고 조화를 유지하면 건강하지 못하다.

『주역』은 우주 자연의 원리는 상보성(음과 양의 조화)에 기초함을 강조하지만, 『주역』은 무극에서 모든 존재가 탄생함을 『중용』은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늘의 능동성(天命)임을 강조함.

모든 존재는 들어남(顯/陽)과 숨겨짐(隱/陰)의 상보적 관계의 연속이며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연결(伸)하기도 하고 관계를 단절(屈)할뿐임-관계론적 및 생태학 존재론:왕양명(王陽明: 1472-1528)의 만물일체론(萬物一切論)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은 상호연관되고 얽힌 상태(=전체론적(holistic)이며 생태주의적(ecological)적 생명관)지만, 인간이란 관계의 그물망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우주자연의 중심적 역할(天地之心)임을 강조한다. 인간은 영명(精靈)한 영적이고 정신적 존재이며 양지를 자닌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복잡한 체계이며 인간은 우주 자연의 변화 속에서 무질서에 함몰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조화(造化)의 능력, 즉 자기 조직화의 능력이 있다. **인간과 우주자연은 상호적 관계를 맺는 생태학적 관계이지만 인간이란 동시에 우주 자연을 존재론적 가치를 부여하고 정립시켜주는 생태학적 가치를 지닌 독특한 존재이다.**